보이는 전장은 결심을 바꾼다

형 찬 우 소령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결심은 언제나 주어진 정보와 여건 속에서 내려지고, 그 결과는 장병들의 움직임과 안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정보는 충분한지, 판단을 더 정확하게 도울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등을 자문하게 된다.

지난해 실시한 대침투 종합훈련 때 상황판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다. 수송 관련 체계와 전장이동추적체계(BMTS)를 활용해 편의대 위치와 여러 지원요소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가시화되고 있었다.

그동안 보고와 통신체계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던 상황이 직관적 형태로 공유됐다. 훈련에선 보고와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상황 인식의 중요한 축을 이뤄 왔다. 이동상황 보고, 예상 도착시점 판단, 우발상황 가능성 고려 등이 이어졌다. 이는 당시 환경과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에서 느낀 변화는 이러한 판단 과정을 보완해 주는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상황이 분명해지자 결심은 자연스럽게 신속해졌고, 결심 이후 추가 확인과 조정 역시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각 요소의 흐름이 공유되면서 불필요한 반복 확인은 감소하고,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각자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상황의 가시화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호 간 판단을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명확해질수록 지휘와 현장의 움직임은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이런 변화는 지원과 수송 영역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원요소는 흔히 뒷받침하는 조건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론 작전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번 훈련에선 지원요소들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면서 지원이 대기가 아닌 작전과 동시에 진행되는 요소로 인식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계 완성도와 운용자 숙련도 등 보완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전장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위에서 결심하도록 돕는 방향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날의 상황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기술 그 자체보다 결심방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장을 보이게 만드는 노력은 곧 결심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보이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때 현장의 움직임은 더욱 안정된다. 오늘도 훈련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상황을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신뢰할 수 있는 결심이 현장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임무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군사지식에 '효율'은 없다

박 철 원 대위
육군보병학교

육군보병학교 전술학교관으로서 올해의 주인공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였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기보다 교관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생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Z세대가 '어떻게(How to)'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원하고 정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 스스로 해답을 구하기보다 교관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교관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은 '책임감'과 '올바른 방향'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지름길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기간 정답을 알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정답과 성적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방향이 올바르다면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길 바랍니다.

둘째로, 군사지식엔 결코 '효율(efficiency)'이 없습니다. 효율은 투입한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라는 의미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여러분의 성향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술(戰術)과 전기(戰技), 절차(節次)를 익히는 동안만큼은 그 효율은 잠시 접어두길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병과학교에서 공부하는 교리(敎理)는 정답이 아닌 '나침반'입니다.

검색창의 단답형 해답에 익숙해지지 말고, 교범을 탐독하며 원리를 파고드는 '인고(忍苦)의 시간'만이 야전에서 대규모 전투작전 시 여러분과 부하의 생명을 지킬 진정한 내공이 됩니다. 전장에는 검색창이 없습니다. 교범을 탐독하고 고민했던 시간만이 여러분의 뇌와 몸에 근육처럼 남아 위기의 순간 본능적인 통찰력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품성과 예의,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쌓은 지식을 조직과 전우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장교가 되고, 자신의 편안함이나 효율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이 있을 때 오만촉광의 다이아몬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임관 후 첫 교육을 받으며 직무 지식을 쌓고 탁월한 군사적 통찰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중세 유럽에선 리더를 '외로움' '인내'와 동의어로 여겼다고 합니다. 후배 장교 여러분! 처음이란 설렘이 현실의 한계를 만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게 할지도 모릅니다. 교관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경험으로 배운 책임과 방향

-군인 자녀 해외 인문학 탐방 소감문

이 영 서
관인고등학교 2학년

오랫동안 '경험보다 성취가 중요하다'고 믿어 왔다. 여행은 공부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활동이고,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라고 여겼다. 주어진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군사랑모임(KSO)이 주관한 해외 인문학 탐방은 이런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단순히 해외를 방문하는 일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다.

미국 워싱턴DC의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했을 때 역사라는 과목이 더는 시험을 위한 암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과서 속 글로만 접하던 대한제국의 외교적 노력은 그 공간 안에서 생생하게 다가왔다. 타국에서 자주적인 근대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선조들의 흔적을 직접 보며 지금의 대한민국도 수많은 선택과 노력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조지워싱턴대에서의 시간도 인상 깊었다. 캠퍼스를 걸으며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자 막연했던 대학 진학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왜 공부해야 할까?"란 질문에 나만의 답을 찾게 됐다. 목표가 생기자 공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해야 하니까 했던 공부가 이젠 스스로 선택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백악관과 링컨기념관 방문은 '책임'이란 가치에 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 나라 지도자의 결정이 세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자유와 평등이란 가치가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군인 자녀로서 누리는 평범한 일상 역시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과의 만남 역시 기억에 남는다. 익숙한 한국어로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은 새로웠다. 그들의 도전과 선택을 들으면서 나의 가능성을 너무 좁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봤다. 세상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러 갈래의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탐방은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었다. 생각을 넓혀 주고,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안겨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경험이 성취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취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여정에서 얻은 배움과 자극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싶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응모한 휴대전화 기반 카카오톡으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13, (일반)02-2079-3713